

이 땅에 서기 위하여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아이가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박준수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중소기업의 도산, 실직과 파산, 거리로 내몰린 가장들. 그렇게 갑작스러운 붕괴 속에서 우리의 일상도 함께 흔들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대를 ‘고난 속의 낭만’으로 기억하곤 한다. 박세리는 맨발 투혼으로 LPGA 우승을 차지했고, 양희은의 ‘상록수’가 흐르던 공익광고 속에서는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희망의 공을 던졌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금모으기 운동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회복시켰다. 우리는 그런 힘든 시간을 함께 단단히 뭉쳐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함께 이겨낸 시대’의 이면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다. 사회의 붕괴와 함께 무력하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아버지들, 그리고 너무 일찍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들이다.

IMF를 극복하고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던 2000년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덕담처럼 자리 잡았다. 2001년 말, 한 광고에서 당시 가장 인기가 많던 여배우 김정은이 붉은 스웨터를 입고 설원 위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를 외치며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그해 새해 인사말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이 광고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던졌다면, 금융·보험사들은 그보다 한발 앞서 무거운 메시지를 내놓았다. 삼성생명의 “부자 아빠”라는 슬로건은 가정의 책임과 경제력이라는 이상을 묵직하게 제시했고, ‘가난은 되물림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많은 아버지들이 좌절했다. ‘부자 아빠가 좋은 아빠’라는 도식은 거대한 사회적 명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부자 아빠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아빠는 아니다. ‘좋은 아빠’라는 말은 여전히 다양한 방향성과 가치관을 품고 있는 말이다. 한충석 작가에게도 그랬다. 그는 불안정한 작가라는 직업 안에서도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로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주말이면 작업실로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작업과 가족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스스로도 좋은 아빠가 되고자 애쓴다. 그가 말하는 ‘좋은 아빠’란 자식에게 풍요를 보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꺼이 감정을 나누며,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의 작품 속 가족들은 긴 눈매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시선에는 불안 대신 따뜻함이 묻어난다. 아이들은 천천히 그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갖춘 어른으로 자라날 것이다.

한충석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 미술 외에도 유독 윤리 과목을 좋아했다. 그는 교과서 속 철학자들의 아포리즘에서 삶의 방향을 찾으려 했다. 그 시절의 공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신적 무장이었다. 그렇게 체화된 사상들은 그의 내면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이후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예술적 신념으로 발전했다.

그에게 도덕은 단지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였다.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듯, 우리는 모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어른으로 살아왔다. 자아 실현보다는 집단과 관계를 우선시하며,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윤리적 의무는 그의 예술 속에도 깊이 스며들었다. 그의 작업에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써온 흔적이 담겨 있다. 눈치를 보며 거리를 재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따뜻함을 나누고자 애쓰는 존재들. 그것이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이 품고 있는 정서다.

이제 그는 서서히 ‘좋은 아빠’, ‘타의 모범이 되는 바른 사람’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다. 그의 이번 작업은 그 여정을 담은 자화상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시간’을 조용히 꺼내보게 만드는 거울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는 타인과의 관계와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서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그렇게 한충석은, 이 땅에 서기 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한충석 작가는 지난 20 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다. 그는 그 시간 중 2 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고, 나머지 시간은 관계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한다. 그의 작업은 인간관계의 미묘한 결, 감정의 거리, 눈치라는 감각에 대한 깊은 탐구로 채워져 있다.

그는 눈치를 보되 결코 휘둘리지 않는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그려나간다. 한 개인이자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의 작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단순한 회화를 넘어선 그의 자화상이다.

오랜 시간 ‘관계’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왔던 그는 이번 전시에서, 그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 같은 관계 속에서도 비록 흔들릴지언정 잘 서 있는 법에 대한 고민의 답을 털어놓는다.

그렇게 한충석은, 이 땅에 서기 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To Stand on This Land

The journey of a child forced into adult life, becoming a true adult

Junsu Park

In 1997, an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shook South Korea at its very core – the IMF financial crisis. The successive bankruptcy of the major conglomerates was followed by the fall of smaller enterprises – unemployment and bankruptcy drove countless breadwinners out to the streets. Upon the face of an abrupt maelstrom, our everyday life lost its balance.

And yet, people often romanticize that era – as one with 'sentimentality in adversity'. Park Se-ri won an LPGA title with her barefoot grit, and Yang Hee-eun's song *Evergreen Tree* played in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as a voice conveyed the message: 'We will overcome and triumph in the end'. Chan Ho Park threw balls of hope on the pitcher's mound in MLB, and the nationwide gold collection campaign revitalized the solidarity among people. We remember this difficult time as a moment when we joined forces to combat the ordeal.

However, behind this hopeful narrative of 'people who fought together', there were lives we quietly forgot: our fathers who collapsed helplessly along with the economy, and the children who were forced to bear adult burdens far too soon.

The 2000s that followed the IMF crisis were full of hopeful expectations. The phrase 'May you be rich' became a new catchphrase and a blessing. Toward the end of 2001, a commercial featured Kim Jung-eun, then the most popular actress, wearing a red sweater on a snowy hill calling out, 'May you all become rich'. The commercial became a national sensation, soliciting nationwide empathy and quickly changing the tone of New Year's greetings. If the commercial conveyed a cheerful message that anyone can become wealthy,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ies had already alarmed the public with a heavier message. Samsung Life's slogan, 'Rich Dad', projected the heavy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implicit in such responsibility. The slogan has left many fathers

frustrated under the implied message that 'poverty is inherited'. The idea that 'a rich dad is a good dad' prevailed and became a dominant social premise.

Of course, being a rich dad does not necessarily warrant a good dad. 'A good dad' is still a term that contains various values and virtues. This applied to Han Choong Seok, who chose the path of care, constancy, and responsibility despite the financial instability that his life as an artist invariably connotes.

He brings his children to the studio to spend time together on weekends. It is part of his effort to reconcile his artistic endeavor with the coexistence of family life in one space. He contemplates his relationship with his children and does his best to become a good father. For Han, 'a good father' is not he who guarantees affluence for his children but he who spends time together, happily shares emotions, and provides sentimental stability. Family in his works silently observes the world with narrow eyes, but the gaze shows warmth rather than anxiety. Children will, with such a gaze, grow up to be adults with a healthy ego.

Back in high school, the artist had a keen interest in not only art but also ethics. He sought direction in life from the aphorisms of philosophers he read in textbooks. For him, learning was not merely academic – it was a form of spiritual armament for survival. The internalized ideas laid the foundation on which he supported his inner world and later evolved into the values that guide his worldview and artistic convictions.

For Han, ethics was not simply a matter of normativity. It was a minimal order that kept his inner compass from wavering. Like many Korean fathers of his generation, we survived as adults under the social pressure that we must serve as an exemplar for others. Rather than individual wish fulfillment, we prioritized collective harmony and relationships. Of course, our culture that considers sacrifice a virtue also contributes to this phenomenon. The ethical obligation that he imposed upon himself permeated deeply into his art as well. His works contain the traces of those who struggled to survive.

He is slowly liberating himself from the pressing labels of 'a good father' and 'a virtuous, exemplary man'. He is in search of himself – speaking his mind rather than trying to please others, and loving in his own terms. His present works are the portrait of such a journey and a mirror that makes us quietly introspect on the 'time when we became adults too soon'.

Through this exhibition, Han Choong Seok lays bare his own story so as to liberate himself from the relationship with and the gaze of others. As such, Han paints his story *to stand on this land*.

Han Choong Seok has been painting for the past two decades. He reveals that during those years, he spent two years thinking about his identity and the rest was devoted to understanding 'relationships'. His works are full of profound exploration of the subtle textures of human connection, the emotional distances between people, and *nunchi* – a Korean word for the unspoken social awareness.

Han does find *nunchi* an important element of social life, though he never lets the *nunchi* rule him. Quietly yet firmly, he paints his life with integrity. As a social being and an artist, and as an individual, his life enters his work seamlessly. In this way, his paintings become his portraits.

With his lifelong commitment to contemplating the notion of 'relationship', the artist, in the present exhibition, offers his answer to stand his ground amidst the endlessly turbulent world of relationships. In this way, Han paints his answer *to standing on this land*.